

개 풀려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中空動物形器로서 등에 瓶口같은 開口이 있는 것은 實은 古代近東이나 유럽에서도 흔히 보는 바이며(註1參照) 거기서도 如斯한 動物形器는 祭器 또는 儀器로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그것들은 그 出發點에서 外形과 함께 容器라는 機能的 面도 賦與되었던 것이며 이 경우 그것은 술이나 聖水마위의 祭祀特殊液體를 담는다는 그 元來의 機能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勿論 伽耶地方의 이러한 動物形 土器가 實地 儀式에서 容器나 注水器로 使用되었으리라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東京大學이 所藏하는 南韓出土의 一器는 高杯를 후려서 耳杯形으로 만들고 一端에는 조그만 鳥形을 달고 他端는 注口로 하고 있어 그러한 鳥形土器가 비록 象徵적이었는지는 모르나 一種의 聖水容 器的인 性格도 具有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다.

四

以上別 根據도 없이 雜談같은 臆說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나로서는 伽耶地方 特有的 鳥形土器는 이 地方에서만 있던 「以大鳥羽送死」라는 風習과 關連시켜 葬送用鳥羽의 代用 또는 一種의 奢侈性鳥羽라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에 대한 崇尚은 全國적이었는데 鳥形土器가 何必 伽耶地方에만 集中되고 또 왜 물새(오리 아니면 鵝鳥)를 썼는가 하는 理由는 알 수 없으나 伽耶가 實質적으로 洛東江下流의 델타地域을 利用한 先進農耕地帶니만큼 生活環境에서 由來하는 自然現象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하자면 伽耶人들은 물새와 實地生活面에서 가장 緊密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며 거기서 물새에 대한 特殊觀念이 發展한 것 같다. 鳥形土器는 그런 意味에서 거꾸로 古代伽耶人들의 實生活의 一面(오리의 狩獵 또는 飼養)을 보여주는 經濟的資料라고도 할수 있을지 모른다.

註一、拙稿「三國時代動物形土器試考」美術資料六號(一九六一、一二)

二、拙稿「鳥形안테나式細形銅劍의 問題」白山學報 第八號(一九七〇、六)

三、李龍範「高句麗人의 鳥羽插冠에 對하여」東國史學 第四輯(一九五六)

四、餘談이지만 矢대는 鶯대(鳥樛)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된다.

五、金載元 尹武炳 義城塔里古墳(一九六二) 圖版二

傳山清出土紅陶와 그 伴出石器

金 英 夏

一、紅 陶(圖 1、2)

이 紅陶는 慶南山清地方에서 出土되었다 한다. 正確한 出土地와 關係 知見을 確認하고자 努力했으나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物件을 가져온 사람의 傳聞에 依하면 慶南山清地方에서 砂質 土中에 묻혀있던 箱式石棺으로 推定되는 것 속에서 石器和 더불어 나왔 다 한다.

이 紅陶는 良質의 粘土를 使用한 所謂細泥紅陶로서 器壁이 얇고 따라서 가볍다. 表面과 內面 侈口의 밑까지는 紅色으로 잘 磨研되어 매끈하다. 등륜계 鼓張한 胴部와 頸部와의 接着線이 認定되고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급하게 좁아져 外反한 口緣과 당는 部位는 좁은 感覺을 준다. 丹塗가 벗어진 곳이 약간 있기는 하나 거의 完整한 遺品이다. 벗어진 곳의 胎土는 黃褐色을 보인다. 이 種類의 土器로서는 大形에 屬하는 데 黃石里 支石墓① 出土의 大形 紅陶와 比하면 高와 口徑의 크기는 거의 같으나 胴徑은 약간 더 크다. 그래서 목이 더 좁게 보이고 器形全體가 광과 질한 느낌을 주고 있다. 高一五、胴徑一六七、口徑一〇、壁厚〇·四—〇·五 cm

紅陶는 文樣이 그려져 있지 않은 採陶이다. 卷上法으로 造形하는 手製의 土器로서 器面을 아름답게 磨研한 붉게 구운 것이다. 紅色은 酸化鐵을 마르고 酸化炎으로 구운 效果이다. 紅陶의 起源은 彩陶와 더불어 오래인 것 같고 整形을 爲하여 두드린 자국이 있는 粗紅陶는 歷史時代에 이르기까지 製作이 繼續되고 있으므로 紅陶는 先史土器의 큰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熱河地方의 紅陶②는 出土狀으로 미루어 中東地方의 春秋戰國時代까지 時代가 내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遺物 가운데는

仰韶彩陶의 器形과 아주 많은 것도 있어서 한 말로 紅陶라 稱하더라도 그 內容은 複雜하다. 韓國의 紅陶는 熱河地方의 紅陶의 系統에 屬하는 것이라 한다. 日本의 彌生式土器도 역시 그 系譜속에 들 것이라 推測되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의 紅陶의 出土例③는 다음과 같다.

- a、威北雄基松坪洞貝塚
- b、忠北提川黃石里支石墓
- c、大邱大鳳洞 支石墓
- d、慶南昌原熊南面石室
- e、昌原郡鎮東面城門里支石墓
- f、昌原郡鎮田面谷安里支石墓
- g、金海貝塚所在丘陵
- h、金海長有面茂溪里支石墓

a는 伸展葬된 人骨의 머리맡에서 飾玉等과 伴出하였는데 韓國唯一의 採文土器이다. b는 黃石里 c號支石墓에서 表面을 磨研한 平底 有頸의 無文土器와 더불어 2個가 나왔다. c는 大鳳洞支石墓群第一區第二支石墓에서 磨製石劍等과 伴出하였다. d는 熊南面 石室에서 磨製石劍과 石鏃 一九個와 伴出하였다. e는 城門里 支石墓의 石板이 出土한 附近 土中에서 많은 細片으로 發見되었다. f는 谷安里支石墓에서 나왔는데 副葬品이라고는 이것 하나 밖에 없었다. g는 石鏃 2個와 伴出하였다. h는 茂溪里 支石墓에서 靑銅鏃 管玉磨製石劍等과 判出하였다.

從來 韓國에서의 紅陶의 出土例는 威北과 慶尙南北道地方에 局限되는 氣味가 없지 않다가 近者에 忠北提川에서 新例가 添加되었다. 그러나 現在까지로는 西海岸과 威北을 除外한 漢江以北에서는 全히 紅陶가 發見된 일이 없다. 또 紅陶가 採陶의 一變種이라 할진데는 文樣이 그려진 採文土器가 伴出되는 수도 있음직한데도 不拘하고 아직껏 雄基松坪洞의 彩文土器外에는 그 例가 없다. 이밖에 南韓에서 發見되는 紅陶와 關係된 知見으로 紅陶는 주로 支石墓下의 石板에서 發見되고 住居址遺跡에서 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 紅陶는 그 器形이 一般土器와는 달리 長頸의 圓



圖 1 : 紅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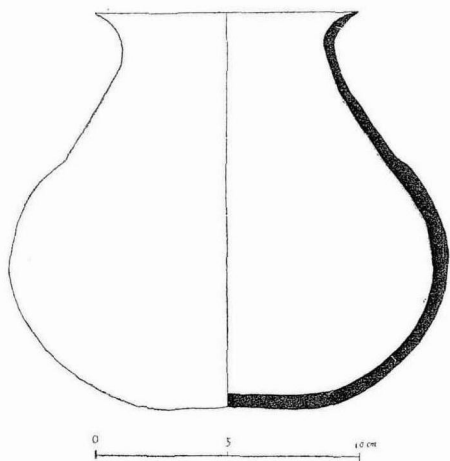


圖 2 : 紅陶實測圖

底壺를 基本形으로 하고 있다는 것, 紅陶는 實用性없이 假器化한 石劍 石鏃 등과 作出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紅陶가 實用的인 容器라기 보다는 祭用 埋葬用으로 特別히 만드는 土器임을 示唆하는 듯하다. 그리고 靑銅劍을 模倣하여 假器化한 磨製石劍과 作出하고 특히 金海茂溪里支石墓에서 靑銅鏃과 伴出된 것으로 봐서 紅陶는 이미 靑銅利器를 알고 있었음이 證明된다. 이것은 南韓에서의 紅陶의 年代를 決定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二、石磨盤과 磨棒(圖 3)

紅陶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함께 石磨盤과 磨棒을 가져왔는데 紅陶가 出土된 石棺 바로 밖에서 發見되었다 한다. 紅陶의 價値를 높혀 代金을 올려받기爲한 手段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石磨盤도 그리 흔하게 發見되는 遺物이 아니며 保存狀態도 좋은 大形의 것이기에 여기 報告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萬一 紅陶와 磨盤의 共存이 眞實한 傳聞이라면 이것은 南韓에서 처음 있는 稀貴한 例가 될 것이다.

이 石磨盤은 花崗岩製로 長方形의 長軸 兩端에 半圓이 붙은 形狀 즉 圓角長方形을 이루고 있다. 兩머리는 들리고 中間을 向하여 完滿히 아래로 꺼졌다. 磨面의 磨蝕은 매우 平滑하고 한쪽 머리는 끝에서 約 1cm 가량 磨蝕되지 아니하고 平滑하게 原狀을 남기고 있다. 長軸 中間에서 약간 치우친 部位에서 絶斷되어 두께가 되었다. 거의 完整한 모습을 보여준다. 長徑 兩端(至端) 六六·五, 短徑 邊至邊 二九·三〇 두께 三·五 cm 石磨棒은 역시 花崗岩製인데 半柱狀體의 圓角長方形을 이루고 있다. 磨面은 磨痕이 현저하여 平滑하고 兩端에서 約 四 cm 가량 씩은 磨盤과 磨擦하지 아니한 것이 뚜렷하여 두께가 더하다. 背面도 全面이 磨琢되어 있다.

長徑 三八·五, 短徑 一一·〇 中間部位 두께 三·三·五
兩端(四 cm) 두께 五·六 cm

石磨盤과 石棒은 穀物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碾石 즉 製粉器이다 使用者는 磨盤의 長軸을 自己앞으로 向해 놓고 이 것과 直交하여 水平

으로 엮은 磨棒은 左右 두 손으로 잡고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磨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갈기 때문에 磨盤의 面은 長軸으로 우묵하게 되고 앞뒤 兩端에 갈리지 않고 남은 隆起가 있기도 한다. 그러나 短軸 兩邊에는 갈리지 않고 남은 隆起는 없다. 그리하여 西洋 말안장과 닮게 되어 saddle quern 이란 이름이 생기기 된 것이다.

韓國에서의 石磨盤의 出土例 ⑤는 다음과 같다.

- a, 咸北鍾城郡 行營面地境洞
 - b, 間島禹跡洞
 - c, 會寧附近 豆滿江流域
 - d, 咸北 農甫里 油坂貝塚
 - e, 平壤附近 大同江面 斗因里
 - f, 黃海殷栗郡 南部面軍糧里
 - g, 黃海鳳山智塔里
 - h, 釜山東三洞貝塚
 - i, 釜山多大浦貝塚
 - j, 大邱附近 達城花園面城山洞 및 月背面上仁洞丘陵
 - k, 京畿坡州郡 月籠面玉石里
- a는 밝은 赭褐色으로 表面을 高度로 磨研한 土器와 磨製 및 打製의 石器와 伴出하였다.
- b는 土器表面에 光澤을 加한 無文磨研土器의 遺跡이다.
- c는 a와 同系統의 無文磨研土器와 伴出하였다.
- d는 櫛文土器의 遺跡이다.
- f는 櫛文土器의 破片和 伴出하였다.
- g는 櫛文土器의 遺跡인데 石犁 石鏃 등 農耕關係의 石器가 穀粒 도토리 와 伴出하였다.
- h는 櫛文土器와 同位層에서 나왔다. 이 遺跡에서는 추격모양의 石器(石鏃)가 出土하였다.
- i는 櫛文土器가 나오는 遺跡이다.
- j는 無文土器 有溝石斧 등을 주을 수 있는 石器時代 遺物의 散布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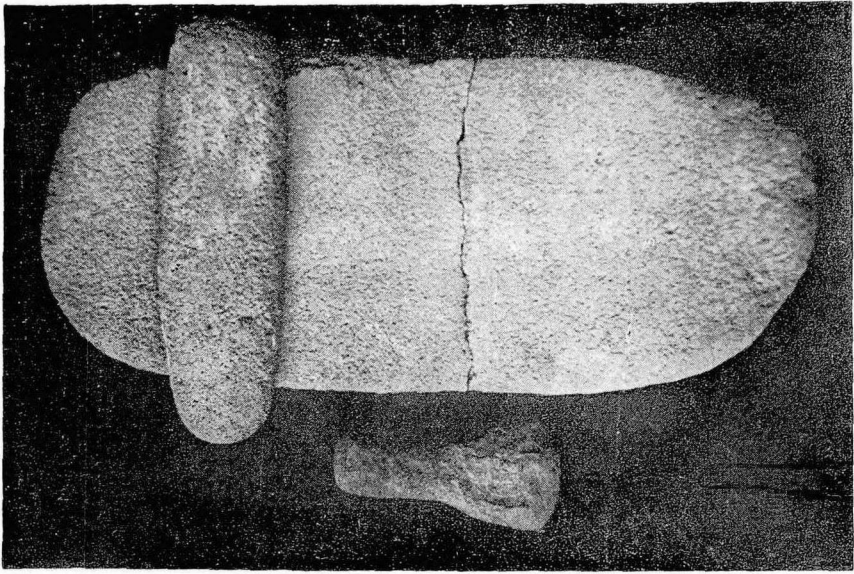


圖 3：石磨盤 吳石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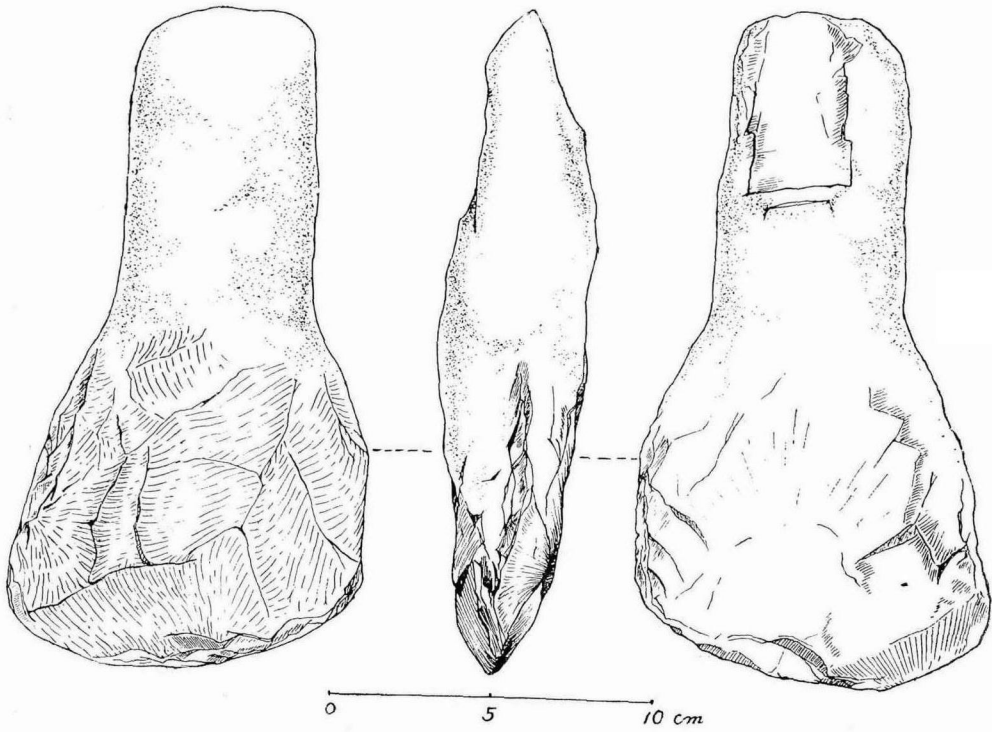


圖 4：石鎚實測圖

k는 支石墓下の 竪穴式住居地에서 磨製石器 無文土器와 伴出되었다. 石磨盤은 이와같이 韓半島 全域에 分布하고 櫛文土器와 共存하는 한 無文土器에도 伴出한다. 有光氏⑥는 水野氏의 所論을 引用하면서 「細石器가 發見되는 곳 半듯이 石棒 石皿의 類를 伴出하고 이 共存關係는 蒙古新石器文化의 基本的特徵이다. 그리고 同時に 그것은 櫛目文土器의 伴出에 依하여 特徵지워진다. 細石器에 櫛目文土器가 수반함은 蒙古시베리아의 特色이며 櫛目文土器를 標識로 하는 文化가 北歐에서 시베리아를 經由하여 蒙古로 들어가 따로히 보다 南方의 經路를 西에서 東으로 橫斷해오는 磨盤의 文化와 合해져 蒙古細石器文化를 構成한다. 韓國의 櫛目文土器와 磨盤의 共存도 또한 같은 文化가 다시 東으로 波及한 結果라 할 수 있겠다」고 磨盤이 櫛目文土器와 共存하는 來歷을 論하였다. 그리고 大邱地方과 같이 櫛文土器는 없고 無文土器와 磨盤이 共存하는데 對해서는 咸北에 보이는 無文土器와의 關係가 그대로 南으로 波及했다고 解釋하기 보다는 南韓地區의 內部에서 櫛文土器文化로부터 傳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見解를 보이었다.

三、石鎬(圖 3, 4)

이 주걱모양의 石器는 紅陶와 함께 石棺속에서 出土되었다 한다. 그 傳聞의 信憑性 與否는 且置하고 이 石器自體가 약간의 參考의 對象이 될지하다.

이 石器는 橢圓形의 扁平한 돌⑦로 만들어졌다. 石材의 한쪽의 兩邊을 磨琢하여 자루를 만들고 다른 한쪽의 둥근 沿邊을 敲削하여 弧形의 凸稜을 이루고 있다. 刃部의 約 五分의 四가량은 使用으로 因한 傷痕이 현저하고 일핏 보기에 斜狀과 같다. 原形을 남긴 刃部는 蛤刃이다. 裏面 자루의 上部에 한쪽으로 치우쳐 約 三×五.五cm의 矩形의 홈이 造出되었는데 아마 木柄을 緊縛하는 것과 關係있는 構造인 듯하다. 허리 아래쪽에서 刃部에 圓한 넓은 面에서는 敲削의 度가 깊다. 全長 二〇.五 雙寬 一一.〇 柄脚의 寬 五.五 長 八.七 腰寬 七.八 厚 四.五cm 이 種類의 石器는 咸北에서 集中的으로 出土하고 釜山 東三洞貝塚에

서도 나왔다. 橫山氏⑧는 이것을 石斧로 分類하고 그 機能을 홀잡는 農器具(土搔)로 推定하였다. 金載元氏⑨가 圖示한 咸北打製石器는 모두 이 類型에 屬하며 有光氏⑩가 「北韓에 普遍的인 大形의 特色있는 打製石斧」라 指稱한 것도 바로 이것으로 짐작된다. 일찌기 梁思永氏⑪는 赤峯附近에서 이 類形의 石器를 發見하고 역시 石斧라는 이름을 붙치면서 그 機能은 確定하지 못했다. 王亞洲⑫는 吉林東部山林地帶 松花江上流牧丹江 渾江流域 內蒙古東南部 등에서 出土된 이 類形의 石器를 比較하면서 「如內蒙古地帶 多寬大平頭刃口 似適合于多沙土地帶 吉林東部地區多圓壯 刃口 器多厚鈍 刃端比較短小 適用於山林土地 長春地區發現의 石鎬 則較 東西兩地區爲進步 它不僅有較長의 易于吃土 磨製銳利의 刃口和光滑의 器面 而且還有可以使綁扎牢固의 大而方形의 亞腰缺刻 以及亞腰面上의 凸起橫帶 和凹溝의 製作它的 綁扎點雖然與內蒙出土의 同樣, 都在鎬의 後部但是 器身較 爲窄長 這樣在使用時就可以加強着力點 加深吃土能力」라 論하여 이것을 石鎬라는 이름의 農具로 分類하였다. 器具로서 鎬字는 溫器라는 뜻밖 에 없는데 石鎬라는 이름이 어디서 由來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石鎬라 하는 이와 닮은 데가 약간 있는 石鋤라 하는 흙을 짓치는 農具임에는 틀림 없다.

附記

咸北地方의 紅陶와 南韓의 紅陶가 어떤 關係性을 가지는지 아직 疑問이 많다. 金元龍氏⑬의 「紅陶는 먼저 咸北으로 들어와 東海岸을 타고 嶺南地方으로 들어온 것 같으며 石器時代末期에 盛行을 본 것이 分明하다」는 見解를 일단 首肯한다면 그런 意味에서 이번에 山淸에서 紅陶가 石磨盤 石鎬와 伴出했다는 傳聞도 전혀 可能性이 없는 바도 아니다. 赤峯의 紅陶文化에 紅陶磨盤 石鎬三者의 關係가 如何인지는 아직 未詳이다. 赤峯文化에 또한 이三者의 共存이 認定되므로 赤峯과 咸北의 兩文化類型사이 에 緊密한 關係性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咸北의 紅陶文化에 나타난 三者의 關係가 그대로 傳山淸出土 紅陶와 그 伴出石器에서 볼 수 있다면 咸北과 山淸의 關係性 또한 認定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라 세가지까지 文化要素가 겹쳐있다고 하면 그

聯關는 매우 直接的이고도 강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註一、國立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

二、濱田耕作 赤峯紅山後

梁思永 熱河在不干爾林西双井赤峯等處所采集之新石器時石器古陶片

呂遵誥 內蒙赤峯紅山考古調查報告

三、有光教一 南朝鮮土着文化의 考古學的考察

金元竜 金海茂溪里支石墓의 出土品

朴敬源 昌原郡鎮東面城門里支石墓調査畧報告

國立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

四、有光教一 朝鮮石器時代の すりうす

五、有光教一 上掲論文

金元竜 韓國考古學概論

國立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

六、有光教一 上掲論文

七、Hontels 라는 變成岩으로 매우 堅緻한 돌이다. 八公山附近 花崗岩의 貫入

接觸部에서 分布한다. 이것은 慶南地方까지 फै쳐있다 한다.

八、橫山將三郎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報告

九、金載元 震檀學會 韓國史古代篇

〇一、有光教一 前掲 すりうす

一、梁思永 前掲 熱河報告書

二、王亞洲 長春附近發現的石制農業工具

三、金元竜 金海茂溪里 支石墓出土品

其外 參考文獻 省略

麗初碑身側面

雙龍高彫에 對하여

姜 仁 求

一、序 言

彫刻史的으로 볼때 新羅碑는 「太宗武烈王陵碑」에서 부터 始作하여 九世紀에 들어와 異型樣式을 세우고 다시 高麗에 傳授한다. 彫刻은 一〇世紀에 들어와 滿開하나 어디까지나 龜趺와 螭首에만 局限하고 그것이 全部였으나 麗初에 와서는 아직까지 쓸모없이 素地로 남아 있던 碑身測面에 餘白를 두지 않고 彫刻으로 가득 채운 碑가 나타난다. 이와같이 彫刻이나 文樣으로 作品 全面을 가득 채워 豪華로운 修飾을 爲主로 하는 것은 樣式變遷過程에서 末期的인 現狀으로 나타나지만 麗初에 와서 忽然히 나타난 碑身側面의 雙龍高彫를 看過해 버릴수 없을 것이다. 筆者는 京畿道安城郡二竹面七長里에 있는 慧炤國師碑를 調査①하면서 이 樣式을 發見하고 既往에 알려진 玄化寺碑②와 智光國師碑③에서의 이같은 樣式과 關聯을 지어 생각하게 되었고 이 樣式的 出沒에 注目하게 되었다. 文樣으로서 龍은 三國時代부터 記錄에 보이기 始作하며 遺蹟遺物도 遺存한다. 龍文은 大개 雲文을 同伴하며 螭首나 浮屠에서도 반드시 雲文과 함께 나타나고 本稿에서 考察하려는 碑身側面에도 雲龍으로 나타나 어디까지나 龍이 主가 되고 雲文은 附屬文樣에 지나지 않으며 또 彫刻上으로도 別로 問題視할만한 價値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雲文은 略하고 龍을 主로 하여 다루기로 한다. 本考에서는 이새로운 樣式이 나타나는데 對한 理由를 살피고 또 이 樣式이 六四年이란 短期間만 存續